

진지산업 경기동향 및 하반기 전망

본회

I. 상반기 동향

1. 개 황

수 요

- 수 출
 - 상반기까지 약 21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.0% 감소(작년 상반기 13.7% 증가)
 - 주요인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에 엔저로 인한 경쟁력약화와 주종품인 반도체 DRAM 가격하락 등
- 시 판
 - 전년동기 대비 7.7%의 낮은 증가

- 정보통신기기는 호조, 가전제품은 보급포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저조

공 급

- 생 산
 - 작년 상반기의 전년대비 13.4%보다 크게 낮은 2.9%의 저성장
 - 수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
- 수 입
 - 작년 상반기의 10.1% 증가보다 약간 높은 증가세
 - 소형 가전제품 및 중대형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 수요증대에 기인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	분	'96상반기(실적)	증감율	'97상반기(추정)	증감율
수요	수출(백만불)	21,532	13.7	21,099	-2.0
		(11,211)	(12.3)	(12,222)	(9.0)
공급	시판(10억원)	5,363	7.9	5,777	7.7
	생산(10억원)	25,028	13.4	25,751	2.9
	수입(백만불)	13,178	10.1	14,604	10.8

주) ()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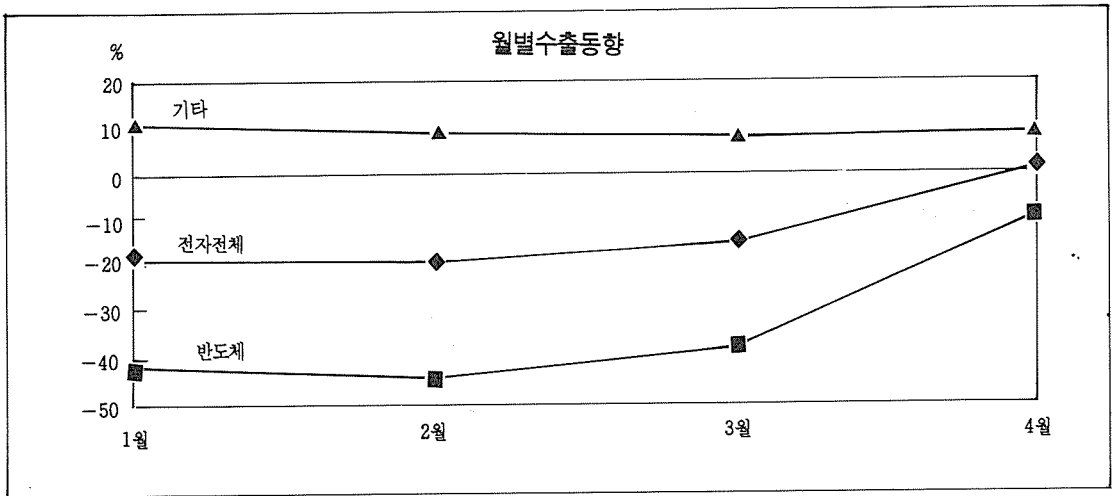
2. 월별 수출동향(1~4월)

- 전자전체로는 2월의 19.6% 감소를 고비로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어 4월에는 0.7% 증가세로 반전
 - 이는 반도체 부문이 전년 3월까지의 16MD램 가격이 US\$ 30이상을 유지하여 매우 호조를 보인후 4월부터 가격하락이 심화되면서 수출

감소를 보인데 따른 현상

-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부문은 월평균 8%대의 증가세

- 4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13.6% 감소한 약 129억불 수출



(단위: 백만불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4월 누계
전자	3,165 (-18.8)	2,895 (-19.6)	3,330 (-15.3)	3,469 (0.7)	12,859 (-13.6)
반도체	1,268 (-42.0)	1,074 (-44.2)	1,280 (-36.9)	1,388 (-8.9)	5,010 (-34.6)
기타	1,897 (10.7)	1,822 (8.5)	2,050 (7.8)	2,081 (8.4)	7,850 (8.8)

주) ()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, %

3. 산업별 생산 및 판매동향

- 가정용기기
 - 수출
 - 상반기까지 약 38억불로 작년보다 6.9%

감소 예상

- 주요인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요저조로 유통적체, 엔저로 인한 경쟁력 약화(대일 OEM 수출 등)
- 시 판
 - 전년동기 7.7% 감소 예상

- 이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한계 보급에 이른데다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위축
- 할인매장에서의 가격파괴 전략과 저가 외제 수입

－ 생 산

- 수요부진과 수입증가로 5%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'96상반기(실적)	증감율	'97상반기(추정)	(증감율)
수출(백만불)	4,053	8.1	3,772	-6.9
시판(10억원)	2,009	-5.9	1,855	-7.7
생산(10억원)	5,458	1.9	5,186	-5.0

○ 산업용기기

－ 수 출

- 금년 상반기까지 수출은 약 47억불로 작년보다 23.4% 증가 예상
- 정보통신 중심의 세계전자시장 호조로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, 주변기기 등의 기술 집약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

－ 시 판

- 약 2조 6천원으로 24.5% 증가 예상
- 디지털 이동전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CT2 등 신규통신 수요증가로 호조
- 그러나 데스크탑 PC, 프린터 등의 저조

－ 생 산

- 무선통신 및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등의 호조로 27.8% 높은 성장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'96상반기(실적)	증감율	'97상반기(추정)	(증감율)
수출(백만불)	3,804	11.2	4,696	23.4
시판(10억원)	2,125	35.5	2,645	24.5
생산(10억원)	5,374	22.1	6,866	27.8

○ 전자부품

－ 수 출

- 금년 상반기까지 약 37억 5,400만불로 작년보다 11.9% 증가 예상, 그러나 이는 작

- 년 상반기 증가율 19.2% 보다 낮은 수준
- 주요인은 LCD, 자기헤드 등 정보통신관련 부품의 호조에도 불구하고, 브라운관, 자기테이프 등의 주종품의 단기하락과 콘멘서 등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'96상반기(실적)	증감율	'97상반기(추정)	(증감율)
수출(백만불)	3,354	19.2	3,754	11.9
시판(10억원)	793	-2.2	881	11.1
생산(10억원)	5,031	9.0	5,602	11.3

소형부품의 경쟁력 열세

- 시판(로칼제외)

- 전년동기 대비 11.1% 증가세
- 세트업체의 해외생산 확대로 튜너 등 가전 제품용 전자부품은 부진
- PCB 및 원판, 소형모터 등 정보통신관련 부품인 호조

- 생 산

- 품목별로 등락이 크나 전체적으로는 11.3% 정도의 성장

○ 반도체

- 수 출.

- 최근 16MD램 가격이 다소 반등 하였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14.0% 감소예상
- 이는 지난해 가격폭락의 영향이 시작되기 전인 3월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.

(16MD램의 정상수출 가격)

(단위 : US\$)

'96.1	4	7	10	12	'97.1	2	3	4
38	28	15	11	9	8	8	9	9

- 시 판

- 가격 하락에 수요도 저조해 상반기 전체로 약 9.2% 감소 예상

- 생 산

- 11.7% 감소예상
- D램가격 하락과 생산조정이 주요인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'96상반기(실적)	증감율	'97상반기(추정)	(증감율)
수출(백만불)	10,321 (7,744)	15.2 (11.6)	8,877 (4,583)	-14.0 (-40.8)
시판(10억원)	436	-4.4	396	-9.2
생산(10억원)	9,165	19.1	8,097	-11.7

주) ()는 조립(Assembly)을 제외한 수출

II. 하반기 경기진망

1.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조사 결과

※ 기업경기실사지수(BSI, Business Servey Index)는 기업이 경기를 前期보다 호조로 예측하는 업체가 많으면 100 이상, 부진으로 예측하는 업체가 많으면 100이하의 지수로 경기를 나타냄.

$$BSI \text{ 지수} = \left[\frac{\text{호조에 상응답업체수} - \text{부진에 상응답업체수}}{\text{총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\right] + 100$$

BSI > 100 : 전기대비 호조

BSI = 100 : 전기대비 불변

BSI < 100 : 전기대비 부진

○ 생 산

적 요소도 병존

구 분		상 반 기	하 반 기
전자산업(생산)		94	134
수 요 별	수 출	96	135
	시 판	88	126
산 업 별 (생산)	가정용기기	73	117
	산업용기기	107	135
	전자부품	86	139

- 수요별

- 수출은 세계시장의 성장세 및 엔고영향, 반도체 DRAM 가격의 안정화, 모니터, LCD, 이동무선전화기 등 기술집약 품목의 호조 등으로 상반기(96)보다 하반기에는 늘어날 전망(135)
- 내수(시판)는 CT2, PCS 등의 신규정보통신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. 가전제품이 위성과의 방송 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할 수 없어 그 수준은 낮을 것이다.

- 산업별

- 가정용기기도 상반기(73)보다 하반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. 그 수준은 아주 낮음(117).
엔고 및 원절하로 인한 수출증가 기대와 위성과의 방송, 선거 등의 특수에 기대
- 산업용기기는 상반기 호조세가(107) 하반기에 더 확대(135)될 전망이다.
이는 이동무선전화, 모니터 등의 국내외 수요가 증대되고 신규정보통신 서비스 등

- 개황(생산)

- 상반기 부진(94)에서 하반기에는 다소 호전될 전망(134) 그러나 그 수준은 내수불황, 생산품목 구조 고도화 등 획기적 변화요인이 없어 큰폭의 상승은 기대 곤란
- 호조요인은 주종품인 반도체 DRAM 가격이 현수준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엔고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내수도 PCS 등 주요 정보통신 분야의 호조가 지속될 전망
- 그러나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, 가전제품 보급의 포화, 고비용 저효율 생산여건의 획기적 개선 지연으로 경쟁력 약화, 기술 집약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저조 등 부정

의 영향

- 전자부품은 반도체 부문이 작년 하반기보다 현저히 증가되고 LCD 등도 지속적 고성장. 다만 CPT, 자기테이프, 콘덴서 등은 하반기에도 큰 기대는 난망

○ 투 자

구 분		상 반 기	하 반 기
전 자 산 업		101	110
산 업 별	가정용기기	90	109
	산업용기기	97	105
	전자부품	107	114

- 개 황

- 전자산업의 투자는 타산업과 달리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LCD 전지, 반도체 등 기술집약 부품의 생산시설 확충과 R&D 및 자동화, 정보화 등 성력화 투자로 하반기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 (110)

- 산 업 별

- 가정용기기는 DVD 등의 시설투자 및 디지털 VCR, 와이드 및 디지털 TV 등을 중심으로한 멀티미디어 분야의 R&D 및 핵심부품개발 등의 투자 지속
- 산업용기기는 이동무선전화, PCS, 모니터 등 신규 및 성장품목의 시설투자과 R&D 부문의 투자가 증가
- 전자부품은 차세대 및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와 LCD, 전지 등의 시설투자과 고정밀부품개발투자및시설의자동화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

2. 하반기 경기 개황

수 요

○ 수 출

- 상반기 2.0% 감소세에서 하반기에는 21.6%의 증가
- 호조요인은 원절하 및 엔고 영향, 반도체 DRAM 가격의 안정추세,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24배속 CD-ROM 드라이브 등 신제품 수출 증가 등
- ※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교기간인 전년 하반기 실적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

○ 시 판

- 상반기 7.7%의 저성장세가 지속되어 하반기는 9.5% 성장
- 불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 관측활동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지속적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투자저조

공 급

○ 생 산

- 상반기 2.9%의 저성장에서 하반기는 16.0%의 비교적 높은 성장
- 내수 저조세에도 불구하고 엔고 등 수출여건의 변화로 수출증대가 요인

○ 수 입

- 상반기 10.8% 증가에서 하반기는 14.3% 증가
- 수출수요 증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등 원자재 수입과 동남아산 저가소비재 중심으로 증가 예상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상반기(추정)		하반기(전망)		년간(전망)	
		증감율		증감율		증감율
수출(백만불)	21,099	-2.0	23,946	21.6	45,045	9.3
시판(10억불)	5,777	7.7	5,707	9.5	11,484	8.6
생산(10억원)	25,751	2.9	28,207	16.0	53,958	9.4
수입(백만불)	14,604	10.8	16,443	14.3	31,047	12.6

3. 산업별 생산 및 판매전망

○ 가정용기기

- 수출은 아프리카, 중남미 등 시장다변화 및 엔고에 대한 기대로 6.7% 증가 예상

- 시판은 주요 제품의 보급을 포화, 경기침체 등으로 상반기의 감소세 지속 그러나 보급율이 낮은 에어컨과 일부 품목은 판촉강화로 다소 증가

(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상반기(추정)		하반기(전망)		년간(전망)	
		증감율		증감율		증감율
수출(백만불)	3,772	-6.9	4,035	6.7	7,807	-0.4
시판(10억불)	1,855	-7.7	1,877	-5.1	3,732	-6.4
생산(10억원)	5,186	-5.0	5,596	1.2	10,782	-1.9

주요 품목별 전망

(단위 : %)

품 목 별	생 산		수 출		시 판	
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
C - T V	-11.2	-6.5	-18.2	-12.0	-6.1	-3.0
V C R	-20.0	-18.0	-38.6	-25.0	-8.5	-9.3
음 향 기 기	-6.3	-3.0	-6.5	-4.0	-6.0	-2.5
냉 장 고	11.4	12.0	12.5	13.0	2.5	5.3
세 탁 기	16.5	15.3	24.3	22.5	7.6	8.5
전 자 렌 지	2.1	1.5	3.5	4.0	-8.3	-10.0
에 어 콘	16.0	19.0	14.0	16.0	23.0	20.0

- C-TV

- 해외 생산공장의 본격 가동
-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수요 감퇴
- 보급을 포화로 국내 시판 감소

- VCR

- 해외생산 확대
- 세계시장 포화상태로 수출은 부진할 전망

- 음향기기
 - 라디오 및 라디오카세트의 해외생산 등으로 3.0% 감소 예상
 - 라디오카세트 등 저가제품은 중국, 말레이시아 제품에 비해 경쟁력 약화
 - 하반기에 미니컴포넌트, 소형휴대용카세트 등 중저가 제품은 다소 호조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부진할 전망
- 냉장고
 - 중남미, 아프리카 등 신시장의 수요증대로 호조 예상
 - 보급 포화로 시판은 상반기의 저조세 지속
- 세탁기
 - 엔고 효과와 칠레 등 중남미지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

- 대형제품 선호 추세로 국내 시판 증가
- 에어컨
 -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의 수출호조
 - 시판은 비교적 낮은 보급율과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신장
- 산업용기기
 - 수출은 해외경기 호조로 23.9%의 높은 증가 예상
 -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제품이 주도
 - 시판도 PCS 등 신규 통신서비스 예정, 모니터 대형화 추세로 호조
 - 생산도 상반기에 이어 23.2%의 높은 성장 전망

(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상반기(추정)		하반기(전망)		년간(전망)	
		증감율		증감율		증감율
수출(백만불)	4,696	23.4	5,694	23.9	10,390	23.7
시판(10억불)	2,645	24.5	2,619	22.5	5,264	23.5
생산(10억원)	6,866	27.8	7,804	23.2	14,670	25.3

주요 품목별 전망

(단위 : %)

품 목 별	생 산		수 출		시 판	
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
P C	-2.5	13.2	23.5	19.8	-5.3	7.2
모 니 터	3.8	5.7	-4.5	10.8	30.3	36.0
H D D	160.6	192.4	385	435.0	3.8	5.6
프 린 터	-1.5	5.4	1.8	8.2	-6.5	2.5
CD - ROM	301.9	330.6	363.7	398.5	208.0	232.3
이 동 전 화 기	125.0	110.0	115.0	100.0	105.0	120.0
팩 시 밀 리	-38.8	-12.0	-23.0	-10.0	2.0	5.0
교 환 기	-35.2	5.0	-45.8	-2.0	-34.0	3.0
코 드 레 스 폰	52.3	40.0	-51.5	-35.0	38.7	30.0
위성방송수신기	-38.8	8.0	20.0	23.0	-73.2	8.0

- P C

- 노트북 PC의 제품차별화로 수출확대 전망
- 그러나 시판은 정부조달수요에 다소 기대하고 있으나 단가하락으로 채산성 악화

- 모니터

- 하반기에는 CDT가격 안정으로 수출 회복예상
- PC의 멀티미디어화와 그래픽, 윈도우 환경의 확산으로 중형모니터 중심의 시장 활성화

- HDD

- 미국, 유럽의 단품 유통시장 중심으로 진출 활발
- 셋트업체의 국산제품 기피로 국내수요는 저조

- CD-ROM 드라이브

- 미국, 유럽시장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
- 광기술 등 핵심부품기술의 국산화로 가격경쟁력 확보
- 24배속 신제품 출시로 신규수요 창출

- 이동전화기

- 미주지역으로의 수출개시(삼성전자) 및 국내 최대 수출업체인 한국 TMC의 호주,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 회복
- 시판은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, PCS 상용화 예상(10월 경) 등으로 신수요 발생

- 팩시밀리

- EU의 반덤핑 조사영향과 후발개도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세 등으로 수출감소세 지속

- 교환기

- 한국통신의 전전자교환 교체수요, 초고속정보망용 비동기식전송모드(ATM)교환기 도입 등으로 국내시장은 다소 회복
- 세계적인 교환기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로 수출은 감소세 지속

- 코드레스폰

- 소비자들의 DSP칩을 내장한 다기능 고급제품(900MHz) 선호로 시판은 크게 증가
- 수출은 경쟁국들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증대로 크게 감소

- 위성방송수신기(디지털)

- 위성과의 방송개시 및 수신기 가격인하 예상으로 내수 증가
- 유럽규격(DVB)에 부합하는 모델개발로 유럽시장 적극 공략

○ 전자부품

-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확대에 LCD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수출은 21.8% 신장 예상, 그러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범용부품은 고전
- 시판도 정보통신 관련 부품 수요증대로 15.4% 증가 예상, 그러나 고정밀 부품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

(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상반기(추정)		하반기(전망)		년간(전망)	
	수출(백만불)	증감율	수출(백만불)	증감율	수출(백만불)	증감율
수출(백만불)	3,754	11.9	4,619	21.8	8,373	17.2
시판(10억불)	881	11.1	886	15.4	1,767	13.2
생산(10억원)	5,602	11.3	6,491	16.5	12,093	14.1

주요 품목별 전망

(단위 : %)

품 목 별	생 산		수 출		시 판	
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	상 반 기	하 반 기
음 극 선 관	-8.0	-11.5	-5.2	-9.5	-16.4	-5.7
자 기 테 이 프	5.1	3.3	-15.4	-12.1	3.6	8.4
P C B	13.2	11.8	22.1	18.4	6.7	7.7
콘 텐 서	-7.6	-6.5	-3.2	-5.7	-9.3	-8.6
L C D	170.5	182.1	225.3	240.1	118.2	125.1

- 음극선관
 - 해외 현지공장에서의 생산비중 증가로 직수출 감소
 - 세계시장에서의 CPT 공급과잉으로 단가 하락
 - 중형 TV의 수요감소, 와이드 비전 및 17인치 이상 CDT 수입증가로 시판 감소
- 자기테이프
 - 주력시장인 러시아 지역의 수출저조
 - 세계시장에서의 테이프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출가 하락
- PCB
 - 정보통신기기에 채택되는 4층이상의 다층기판 중심으로 수출증가
- 콘덴서
 - 셋트업체의 해외생산확대 및 현지조달로 생산, 판매 감소
- LCD
 -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세
 - 노트북 및 이동통신기기의 수요확대 및 대형화 추세로 급성장
- 반도체
 - 하반기 수출은 27.6% 증가 예상
 - 세계 반도체 경기호조에다 한·일 양국D램 생산업체들간의 공급조정 공조체제에 힘입어 가격이 현 수준에서 안정되고 특히 64MD램의 가격하락으로 신규수요 형성이 기대
 - 시판은 생산의 대부분이 수출물량인데다 전년 하반기 대비 가격하락으로 저조

(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상반기(추정)		하반기(전망)		년간(전망)	
	수출	증감율	수출	증감율	수출	증감율
수출(백만불)	8,877 (4,583)	-14.0 (-40.8)	9,598 (6,470)	27.6 (44.3)	18,475 (11,053)	3.5 (-9.6)
시판(10억불)	396	-9.2	325	-0.9	721	-5.6
생산(10억원)	8,097	-11.7	8,316	21.0	16,413	2.3

주) ()는 조립(Assembly)을 제외한 수출